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재형	학번	
이메일	cloudstrif2@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Queensland, MPP	(국가) 호주
기 간	1년	[귀국일: 2022년 1월 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2 년 1월 13일

신 청 인 : 김 재 형 (인)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1. 귀국 보고서 개요

우선 저는 KDI와 Univeristy of Queensland(UQ)에 총 2년간 재학을 하면서 COVID-19에 정확하게 직격을 맞은 세대입니다. 이전의 일반적인 유학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외사항을 겪었고, 복잡한 해외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후 GMP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 내용만 골라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준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2. 대학원 해외 국가 선택 배경

일반적으로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보면 미국 대학원을 제일 선호하였으나, 이 보고서를 읽는 분들은 영국, 호주사이에서 고민하는 비-미국 지원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는 자율선택이 가능했으나 개인적으로 영국 또는 호주대학원을 가보고 싶어서 두나라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제 경험이 영국과 호주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2월 대학 최종선택시 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영국에서 신규로 발생한 Delta 변이때문에 현지 대학교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입국하지 않는 걸 추천하는 상황이었고, 호주는 당시에 국경을 임시봉쇄조치하고 있었는데, 이듬해 1학기에 국경이 재개 될 것이라는 비공식 예측만 나오던 시기라서 어느쪽도 편하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는 Delta에 대한 공포감 조장이 너무 심했던지라 최종적으로 호주를 선택하였으나, 막상 새해가 되니 호주가 국경폐쇄를 더 연장하여서 1학기때는 어느 곳에도 입국하지 못하고 우선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호주의 국경폐쇄가 길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연수기간 동안 수개월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에서 체류하며 보냈고 후반부에 호주로 입국해서 연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떨결에 제가 목표로 했었던 4개의 대학교(영국 맨체스터 대학, 리즈 대학 / 호주 시드니 대학, 퀸즐랜드 대학)를 모두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3. 영국과 호주 생활 비교

각 국가에 체류한 기간이 몇개월 단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제가 2021년에 느꼈던 영국과 호주(시드니, 브리즈번)을 비교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식비 등 생활비 (비용 : 영국 > 호주)

(영국) 외식 하려면 1인당 12~15파운드는 필요하고, 마트 물가는 이보다는 저렴하지만 반조리 식품이나, 편의점 간편 식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퀄리티가 낮고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환율이 안좋기 때문에 체감 식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영국에 자리잡을 경우 직접 요리할 생각을 많이 해야할 것 같고 주변에 Aisan 마트가 가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차나 트램같은 교통비는 한국보다는 비싸지만, 할인 티켓을 잘 이용하면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국제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해주는 의류브랜드가 많은점이 참 인상적이었고, 브렉시트 이후로 Tax-Refund는 없어졌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외식비용은 역시 1인당 12~15AUD 필요한데, 환율이 880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트 물가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특히 과일과 육류의 가격은 한국의 1/2정도로 생각하고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드니의 대형 한인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인마트, 한인식당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서비스 (택시, 미용 등)은 한국보다 분명히 비쌉니다. 연말의 호주의 초대형 세일 기간인 Boxing day 기간에는 정말 좋은 브랜드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은 시드니의 OPAL카드, 브리즈번의 GOCARD가 있는데 브리즈번에서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비용으로 개설이 가능하고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꼭 학생증 나오면 변경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주거 관련 (비용 : 영국 > 시드니 > 브리즈번)

(영국) 같은해에 영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생략.

(시드니) 시드니 대학교는 Redfurn역 근처입니다. 굳이 값비싼 시티에 거주하시는 것 보다는 주변의 한인타운에 거주하셔도 기차로 대부분 20~30분안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가 가본 한인타운중에는 Strathfield를 가장 추천하지만, Lidcombe, Eastwood에도 큰 한인타운이 형성되어있으며, Rhodes 지역은 고층 아파트 위주의 신흥 타운이 형성되어있으니 이곳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브리즈번) UQ는 브리즈번의 St Luci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워낙 크기때문에 캠퍼스가 몇군데 분산되어있기도 한데요, MPP전공을 가지고 있다면 메인캠퍼스인 St Lucia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UQ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머물게 아니라면, 브리즈번의 최고명소로 볼 수 있는 South Bank 뒤편에 자리를 잡으시면 학교도 20~30분에 도착하고, City에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로 보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 기준으로 같은 가격으로 시드니 대비 2~3배이상 넓은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3) 날씨 (시드니 > 브리즈번 >> 영국)

날씨하나 때문이라도 호주에 유학 올 이유는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호주의 날씨는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호주의 여름에 머물렀는데요, 시드니의 여름은 밤에는 때론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낮에도 비교적 쾌적한 여름날씨 입니다. 브리즈번의 날씨도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시드니보다 조금 더 습한 기후입니다. 제가 만났던 현지 친구들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었구요, 최근에 이상 기후로 인해 시드니, 브리즈번 모두 여름에 비오는 날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머물 때도 생각보다 비는 자주왔었어요. 호주에서 건조기는 필수품은 아니라고 보입지만, 브리즈번에서는 에어컨이 있는 집을 구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영국은 다 아시는대로...

4) 영국 VS 호주 총평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국이 문화적으로는 좀 더 흥미롭고 볼거리가 더 많아보입니다(축구, 윈블던, 음악 등). 맨체스터 기준으로 기차로 2~3시간이면 우리가 들었던 영국의 유명 대도시를 모두 여행하기 쉽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인접한 유럽국가 여행도 싸게 다녀올 수 있는게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날씨나 음식 같은 면에서 분명히 단점이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살인적인 물가는 1년 거주하는데 심히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입니다.

호주는 쾌적한 날씨와 자연-동물을 좋아하고, 스포츠와 수상레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한인 타운은 현지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여유있는 생활 환경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영국대비 좋은 환율은 큰 장점입니다. 다만 호주의 최대 도시인 시드니나 브리즈번의 경우에도 메인 City(시내)의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기반으로 한 문화 생활이나 유서깊은 역사지에 관심이 많다면 조금 부족할 수 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UQ의 수업 및 생활에 대해서

호주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2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7월에 2학기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원래 UQ의 MPP과정은 원래 3학기(1년반) 과정이지만, 이번에 저를 시작으로 KDI와 상호 제휴를 맺어서 상호 학점인정으로 1년만에 마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UQ의 필수과목들 몇개를 시간표에 등록하고 나면, 사실상 수강과목 선택의 자유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학기당 4과목을 듣게 되며, 한학기는 통상 13주의 커리큘럼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업방식은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화 하자면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보면 됩니다.

1주일에 2시간 수업(1시간 세미나, 1시간 랙처)을 들어야 하며, 교수에 따라 세미나는 자율 참석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는 매주 주어지는 Reading을 미리 읽고 사전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출하거나, Reading Summary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실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매주 4과목의 Reading 자료를 읽는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제출한 Summary 내용을 기반으로 세미나 시간에 그룹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과목이 세번의 큰 시험(과제)이 주어지는데요 1차-exam, 2차-exam, Final-Essay로 구성됩니다. 1, 2차 시험은 1000~1500 단어 수준의 short essay를 요구하거나 수업에서 제시된 질문을 몇가지 선택해서 답변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Final-Essay는 교수에 따라서 3500~4000 단어의 논문형 essay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과제는 UQ에서 제시하는 Referencing과 표절방지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UQ 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스폰서십 학생들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학부내에 지정이 되어있어서 UQ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어려움을 이분들께 1:1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앞서 밝혔지만 저는 COVID-19으로 너무 많은 어려움과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에 종종 선정된다고 합니다. 캠퍼스는 정말 넓고 아름답고, 캠퍼스 사이로 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티나, South Bank에서 학교까지 Ferri를 타고 통학할 수도 있습니다(Gocard 이용가능). 교내 인프라도 다양하고 학생용 Website도 직관적으로 잘 구현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스포츠 광인데, 수영장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같은 시설이 너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UQ는 호주의 연구중심 대학(G8) 중 하나로 세계대학 순위는 대략 50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한국인 동문회도 온오프라인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20~21 기준으로 제가 알아봤던 호주 Top5 대학에서 1년짜리 석사가 가능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으니 참고하세요. (MPP나 Econ계열 한정)

* UQ : Master of Governance and Public Policy (제휴)

* USYD : Master of Public Policy (제휴인듯 아닌듯..)

* UNSW : Economics (비제휴)

* ANU :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제휴)

* Melbourne : 1년과정 없음

그럼 다들 COVID-19 없는 행복한 대학원 생활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